***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5. 6. 18. 배포 시부터 보도** |
| **사진 설명** | **18일 서울시 용산구 LS전선 서울사무소(LS용산타워)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서 구영헌 LS마린솔루션 경영지원부문장, 클라우스 벤델보 로어센 BWS 부사장, 홍영호 LS머트리얼즈 대표(왼쪽부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 **문의** | **강철 팀장(010-9447-7079,** [**ckang@lscns.com**](mailto:ckang@lscns.com)**)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LS머트리얼즈·LS마린솔루션, 해상풍력 설치항만 사업 추진**  **■ 글로벌 항만 운영사 BWS와 MOU, ‘해상풍력 토탈 밸류체인’ 전략**  **■ 항만 기반 풍력설비 집하·조립·운송 등의 설치 인프라 선제 확보**  **■ 2030년 14GW 해상풍력 시대 대비 공급망 선점**  LS머트리얼즈와 LS마린솔루션이 해상풍력 전용 설치항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양사는 글로벌 해상풍력 설치항만 전문기업 블루워터쉬핑(Blue Water Shipping, BWS)과 ‘국내 항만 기반의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해상풍력 기자재의 조립과 출항이 가능한 전용 항만 거점을 구축해, 정부의 ‘2030년 14GW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 선제 대응하고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이는 양사가 단순 기자재 공급을 넘어, 해상풍력 EPC 수행에 필요한 보관, 설치, 운송,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토탈 밸류체인’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1단계로 올해 하반기, 국내 항만 한 곳을 시범 거점으로 지정해 연간 1GW 규모의 풍력 터빈 처리 역량을 확보하고, 이후 주요 항만으로 확대해 운영 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BWS는 유럽에서 10곳 이상의 해상풍력 항만을 운영해 온 글로벌 전문 운영사로, 이번 협약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해상풍력 항만 운영사와 체결한 최초의 공식 협력 사례다.  홍영호 LS머트리얼즈 대표는 “이번 협력은 해상풍력 전 주기 공급망을 통합하는 전략적 출발점”이라며, “동북아 해상풍력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해상풍력 항만의 병목 해소와 수천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역할 확대를 통해 산업 자립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